

Perfect!

DREAM

2013 SUMMER VOL.04



PERFECT DAY

VISION 2020,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다
**개교 55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PERFECT VALUE

NCS의 적용으로 선진 교육의 포문을 열다
전자과

PERFECT SPACE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혜의 창고
사회교육원

개교 55주년

사람다운 사람

부천대학교



CONTENTS

2013·SUMMER

VISION UP

- 04 **사람다운 사람**
몽당(夢堂) 한항길 선생
- 05 **총장 메시지**
- 06 **PERFECT VISION 1**
임복삼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
- 07 **PERFECT VISION 2**
여길동 최고경영자과정 1기
- 08 **PERFECT DAY 1**
개교 55주년 기념식
- 12 **PERFECT DAY 2**
한길대동제

DREAM UP

- 16 **PERFECT CHALLENGE 1**
한길봉사단 인도네시아 봉사활동
- 18 **PERFECT CHALLENGE 2**
하와이 어학연수 프로그램
- 20 **PERFECT WAY 1**
전자과 · 관광경영과 일본 해외 인턴십
- 22 **PERFECT WAY 2**
4명의 외국인 유학생
- 24 **PERFECT VALUE 1**
전자과
- 28 **PERFECT VALUE 2**
세무회계과

JUMP UP

- 30 **PERFECT HARMONY**
2013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박람회
- 32 **PERFECT IDEA**
버스 승강장 설치 아이디어 시상식
- 34 **PERFECT START**
고윤정 동문(식품영양과 05)
- 36 **PERFECT SPACE**
사회교육원
- 38 **CAMPUS ISSUE**
김모란 교수 조선일보와 인터뷰

NEWS

- 40 **NEWS**
- 42 **신입생 입시요강**



대학 사명

사람다운 사람, 일다운 일을 하는 사람, 기술자다운 기술자 양성

대학 비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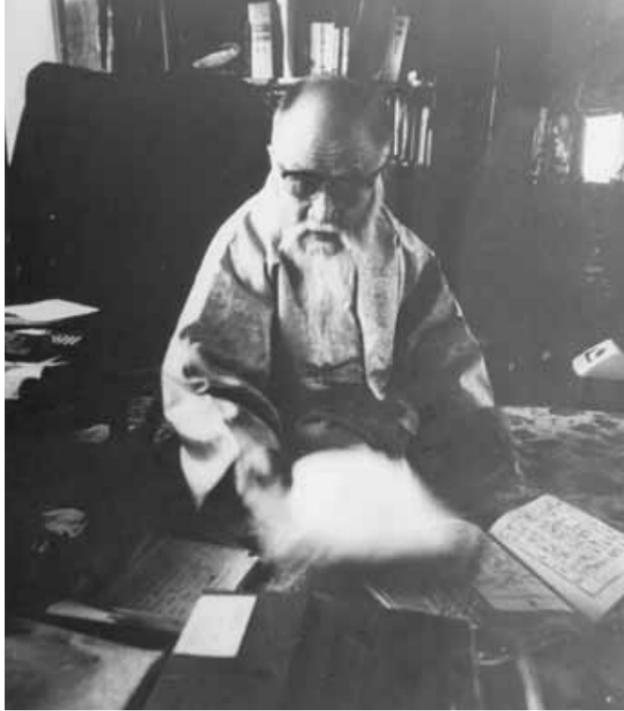
사회적 요구에 따른 창의·인성 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의 건학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

교육 목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창의와 인성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전문가 양성

인재상

전인격적인 인재 · 평생학습 인재 · 창조적인 인재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했던 교육가 설립자 몽당(夢堂) 한항길 선생

민족의식의 배양과 3·5 학생 독립운동

몽당 선생은 한일합방 이후 과천군 상서면에 있는 낙영학교에서 한학과 신학을 수학한 데 이어 수원군 반월면의 장화익숙을 거쳐 1915년에 경기도 시흥공립 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선생은 이어 고보 진학을 원했다. 당시 일제가 설립한 관립 경성고보(현 경기고 교)에 입학하겠다고 하자 부친은 엄하게 꾸짖으며 반대를 했다. "어찌하여 원수가 세운 학교에서 원수들의 학문을 배우려 하느냐"는 거였다. 그러자 선생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일본의 신학을 배워야 합니다."라면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부자간의 연을 끊겠다는 부친의 엄포에 대해 선생은 사흘간의 단식 감행으로 맞섰다. 결국 부친의 허락을 받아낸 선생은 1918년 4월 경성고보에 입학했다.

고보생활은 민족의식을 강하게 담금질하는 세월이었다. 일본인 선생과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게 멸시와 차별을 일삼았으며, 통학열차에서 한국 여학생들은 일본 학생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기 일쑤였다. 이렇듯 식민지백성의 일상은 암울하기만 했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던 그해, 선생은 고보 2학년이었다. 독립운동의 거사계획을 접한 선생은 비밀리에 학생들을 모아 인솔해 아침 일찍 탑골공원으로 향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선생은 대중 속에 섞여 만세를 부르면서 시가행진에 참가했다.

3월 2~4일에는 시흥역과 안양역에서 열차가 정차하면 객실로 뛰어 들어가 승객들에게 독립선언서가 실린 전단지 배포하면서 탑골공원의 만세운동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군포역에서는 시민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고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주도했다.

선생은 3월 5일에 고보 학생들을 인솔해 서울역으로 향했다. 서울역부터 남대문 근처까지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조선독립만세'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만세 시위를 벌였으며, 일본 경찰대는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연행, 체포했다. 서대문 형무소는 잡혀 들어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선생도 그들 속에 있었다. 당시 학생 독립운동으로 연행되어온 경성고보생들은 모두 21명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학생들은 일반인과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면 곧바로 훈방 조치되었다. 그런데 선생은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조선인으로서 내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불렀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결국 선생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경성지방법원 신문조서에서도 선생은 "장래에도 독립운동을 할 생각인가?"라는 조선총독부 판사의 물음에 "조선인이므로 조선이 독립할 시기가 오면 또다시 할 작정이다"라면서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선생은 결국 징역 3년형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제적되었다. 이처럼 선생이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자 부친인 이용익 선생도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왜경은 몽당 선생이 어린 나이에 감히 할 수 없는 담대한 행동을 하자 필시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부친을 끌고 가 조사했던 것이다. 부친은 "누가 시켰겠는가? 나 자신도 마음이 같거늘, 내 아들이 그런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자 왜경은 부친을 구타하고 심하게 고문까지 한 다음에 풀어주었다.

수감생활 중에도 선생은 독립에 대한 꿈을 잃지 않은 채 많은 독서를 하면서 뜻을 키워 나갔다. 3년 동안 차입되어 들어오는 수많은 책을 독파해 나가자, 어느 날 설교하러 들어온 전도사가 선생을 보고는 '재갈공명이 남양 초당에서 세상의 일을 꿈꾸던 심경'에 관해 이야기해 주면서 선생의 심경을 꿰뚫어 보는 듯 '몽당(夢堂)'이라는 호를 지어 주었다.



2013. 7. 5 해외인턴십 참여 학생 격려 말씀 인내와 끈기로 도전하는 사람다운 사람 한방교 총장

창의적인 기술인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라!

길고 긴 장마가 끝나고 마침내 여름의 절정입니다. 비 온 뒤의 땅은 더욱 단단해지고 태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과연 자연은 이 단순하고도 평범한 이치로 우리에게 준엄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언제나 자연에게 배우는 이유입니다. 한 달 전 방학을 맞아 일본으로 인턴십을 떠나는 우리 부천대학교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탁월한 성적을 바탕으로 해외 인턴십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떠날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당부했습니다. 외국어를 습득하고 좋은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끈기와 노력으로 인내할 줄 아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평가를 내리는 기준은 단지 외국어 능력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땀땀이가 흘렀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기술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다운 사람. 이것이 바로 우

리 부천대학교의 건학정신입니다. 우리는 지난 55년간 이 한 가지 목표 아래 끊임 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며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만 힘들어도 도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학생들이 종종 눈에 띄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끈기와 인내를 갖고 힘든 일을 견뎌내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또한 교육의 바탕입니다.

일년 열두 달 달력을 보면 긴 달이 있고 짧은 달이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 있는가 하면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부는 때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굴곡이 존재하며 우리는 결코 편한 시기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견디고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개교 55주년을 맞아 우리 학생 모두가,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스스로 부천대학교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사람다운 사람'의 의미를 가슴 속에 담고 성실하게 생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부천대학교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며...

부천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제10대 총동문회장 임복삼

반갑습니다. 부천의 명문 과정 부천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제10대 총동문회장 임복삼입니다. 항상 교육의 열정과 지역의 발전을 살피며 부천대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및 재학생 여러분께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부천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은 부천과 인근 지역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및 각 전문직, 주요기관의 단체장과 임원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 및 시도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999년 9월부터 부천 지역을 선도하는 인프라로 1,3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대학교를 사랑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최고의 명문 단체입니다. 졸업생 및 재학생 여러분! 우리 동문회는 열정 가득한 한방교 총장님과 교직원 모

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학교를 전국 최고의 대학으로 매년 발전시키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우리 동문회는 이러한 학교의 열정에 동참하며 더욱더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전에 우리 동문회 행사에서도 항공서비스과의 교육 시설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이 건축 경영을 추구하며 움츠리고 있는 이때에 부천대학교가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교육의 큰 길을 걷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천대학교의 한 단면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천대학교의 무한한 발전과 더불어 그 명성이 더욱더 커질 것을 의심치 않으며, 동반자로서 성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취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메카가 되어주길

최고경영자과정 1기
(주)은성전자 여길동 대표

부천대학교와 저의 인연은 1999년, 제가 부천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정보화과정'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부천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정보화과정은 오늘날 '최고경영자과정'의 모태가 되어준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저는 1기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당시 컴퓨터에 문외한이었던 저는 점심으로 김밥을 먹어가며 열심히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로서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제 나름의 열정이었던 거죠. 이러한 저의 열정을 부천대학교가 든든히 뒷받침해주었기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기능 교육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다양한 경영 교육으로 조직 관리 능력 역시 튼튼히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의 핵심은 지역 CEO들이 빠른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와 경영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실무 능력은 물론이고, 조직 관리와 리더십 형성, 그리고 문화예술의 조예까지 넓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최고경영자를 완성합니다. 또한, 부천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최고경영자과정은 지역 CEO 간 친교의 광장으로서 그 역할을 더해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오늘날까지 배출된 1,300명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들은 '부경회'라는 최고경영자 총 동문회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합니다. 경영전문가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새로운 경영 시너지를 창출해내고, 이는 곧 부천대학교가 지닌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어느덧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지도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부천대학교로 돌아와 심신의 건강 증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서예를 비롯해 스포츠 댄스까지 건강한 문화를 즐기고 익히며 부천대학교가 선사하는 혜택을 다시금 누리고 있죠. 특히 서예의 경우, 좋은 선생님을 만나 지역의 각종 대회에 출전해 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천대학교는 제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부천대학교 사회교육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좋은 지식과 인맥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대학교는 지금까지 그러했듯 앞으로도 정보 소통과 지역 발전의 메카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부천의 토종대학으로서 늘 지역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당당히 실현해가는 부천대학교를 응원합니다.

VISION 2020,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다

개교 55주년 기념식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 부천대학교 한길체육관에서 개교 55주년 기념식과 VISION 2020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55년간 몽당 한강길 선생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부천대학교의 역사를 되새기고, 더불어 더욱 눈부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개교 55주년 기념식과 VISION 2020 선포식은 한방교 총장과 김진태 이사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 대표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먼저 행사는 오전 11시 교직원들이 보은의 종 근처에 모여 개교 5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수를 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기념식수로 는 사계절 항상 푸르고 울곧게 자라는 상록수인 주목이 준비되었으며, 한방교 총장과 김진태 이사장이 대표로 시삽하며 개교 55주년을 자축했다. 기념식수 이후에는 부천대학교의 공식 행사를 알리는 상징인 보은의 종 타종이 있었다. 이후 한방교 총장과 교직원들은 한길체육관으로 향해 본격적인 개교 5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사람다운 사람, 그 오직 한 길의 역사

김성수 교무처장과 항공서비스과 김모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개교 55주년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설립자 몽당 한항길 선생의 육성 녹음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다음으로 개교 55주년 기념 교직원 포상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디자인과 이순용 교수, 모바일통신과 박경환 교수, e-비즈니스과 박영호 교수, 관광경영과 김익중 교수, 컴퓨터제어과 김세찬 교수, 사회복지과 신영일 교수, 교무처 유현자 부처장, 평생교육처 이성우 부처장, 사무처 심재명 부처장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서는 한방교 총장의 기념사가 있었다. "밤잠을 못 이룬 채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첫 인사를 한 한방교 총장은 "오늘 55주년은 부천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의 희망을 가슴에 품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모든 구성원들

이 부천대학교의 비전을 함께 인식하고 공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개교 55주년의 벅찬 마음을 표현했다.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다

한방교 총장의 감동적인 기념사 다음으로는 2부 행사인 비전선포식이 거행되었다. 비전선포식에서는 먼저 토목과 최준혁 교수와 영유아보육과 한남주 교수, 직원 대표로는 최지훈 선생과 김소담 선생이 나서 교직원 윤리강령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비전 동영상 상영 순서에서는 1958년 소사공과기술학교를 시작으로 1979년 부천공업전문대학을 거쳐 현재 부천대학교로 개명해 31개학과 재학생 8,000여 명, 졸업생 70,000여 명의 취업 중심 대학으로 성장한 부천대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특히 대통령 방문, 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취업률 1위,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1위, 국제화 역량 강화, 제2캠퍼스 조성 등 최근의 발전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행사인 비전 선포에서는 총장과 보직교수, 직원 대표와 학과별 유니폼을 입은 학생대표 등 25명이 무대에 올라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창의와 인성교육, 분야별 특성화,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을 세부 목표로 삼은 비전을 선포하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밀레니엄관 13층에 위치한 교직원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 하며 다시 한 번 개교 55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길대동제

초여름의 햇살 아래 싱그러운 청춘이 꽃 피다

5월의 어느 눈부신 날, 부천대학교 캠퍼스가 왁자지껄했다. 깔깔거리는 웃음과 함께 물풍선이 터지고, 주점에서는 부침개와 꼬치 등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이 맛있게 익어갔다. 부천인들의 툭툭 튀는 개성과 젊음이 뜨거운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부천대학교 한길대동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부천대학교의 2013년 한길대동제가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화려하게 펼쳐졌다. 부천대학교의 30여 개의 학과와 동아리가 참여한 이번 대동제는 학과장기자랑, 춤 콘테스트, 몸짱·몸짱 선발대회, 동아리 공연을 비롯해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져 싱그러움 젊음의 패기와 발랄함으로 물결쳤다.

신난다, 흥겹다 한길대동제!

축제 기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서 각종 주점과 행사가 다양하게 열려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했는데 각 학과는 전공의 특징을 살려 메뉴를 선정하는 등 특색 튀는 아이디어가 눈에 띄었다. 특히 호텔외식조리과의 떡과 버섯 등을 이용한 꼬치구이와 주얼리디자인전공에서 직접 디자인한 액세서리는 프리마켓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8천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싱그러움 꽃 피우는 한길대동제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 공연, 콘테스트 등으로 풍성하게 펼쳐졌다. 더욱이 이번 대동제에서는 짜임새 있는 동아리 공연들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콘테스트를 기획해 학우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우선 지난 22일 개회선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한 축제 첫날은 학과 장기자랑과 동아리 공연, DJ 초청 공연 등 부천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로 꾸며졌다.

대동제 기간 동안 캠퍼스를 가장 뜨겁게 달군 행사는 야외공

연장에서 열린 '한길 화합의 춤 콘테스트'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총 13개 팀이 참가해 부천인들의 기와 재능을 맘껏 발산하는 무대가 됐다. 부천대 미스터 선발대회와 부천대 미스 선발대회 역시 열기가 뜨거웠는데 출전한 학생들이 무대에 설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생활스포츠과에서는 현란한 밸리댄스를 선보여 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한 축제

대동제의 마지막 날에는 몸짱·몸짱 선발대회로 부천인을 비롯해 축제에 나들이 나온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대동제 마지막 날, 체육관에서 열린 부천대 가요제에는 10여 개의 팀이 참가해 발라드, 록,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화려한 사운드와 시원한 보컬로 무대를 휘어잡았던 부천가요제에서는 섬유유리비즈니스과의 윤성미 학우가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가요제는 부천대학교의 댄스동아리 엠비전의 공연과 함께 점점 대동제의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그리고 초청 가수로 울랄라세션이 무대에 오르자 체육관이 떠나갈 듯 함성이 이어졌다. 춤과 음악에 맞춰 술렁이던 체육관의 열기는 곧바로 불꽃놀이로 이어졌다. 축제의 피날레를 알리는 불꽃들이 캠퍼스의 밤하늘을 형형색색 물들이자 부천인들의 가슴에도 2박 3일 동안의 축제가 가슴에 추억으로 반짝이는 듯했다.



“축제는 개성 넘치는 대학생들의 꽃이죠”

김동희 학생(비서과 13학번)

대학은 자유롭고 저마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직접 음식을 만들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즐겁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다 같이 모여서 준비하니까 정도 더 많이 쌓인 것 같고요. 대학생들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기뻐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라 더욱 뜻 깊어요”

최하늘 학생(유아교육과 13학번)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다니면서 축제를 즐기는 중이에요. 처음 경험하는 축제인데 지역 주민과 아이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여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흥겨운 한마당을 준비했어요”

행정과 09학번 안희준(동아리연합회 회장)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어요. 특히 공연을 준비했던 동아리는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2개월 정도 연습을 하기도 했죠. 박수와 함성이 이어질 때마다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친구들이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 저도 매우 뿌듯합니다. 동아리연합회에서는 공연 기획 외에도 축제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이벤트와 공연 시간 및 장소, 필요 물품 등을 지원했죠. 축제 기획과 진행은 처음 하는 일이라 각 동아리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 힘들었어요. 특히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체육관에서 진행되어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8천 명의 부천인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즐겁고 준비과정에서의 고생은 모두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저의 대학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저희가 책임집니다!”

댄스동아리 엠비전 김연정(10학번 유아교육과), 이원중(09학번, 모바일통신과)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활동하는 댄스동아리로서 당연히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라 생각해요. 교내에서는 동아리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라 저희 무대를 기대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올해는 웰빙퍼포먼스를 준비해서 밝은 분위기로 댄스를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을 기획했어요. 무대에서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을 때의 기분은 정말 최고입니다. 개인적으로 축제 공연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아쉽기도 하지만 남은 학기 동안에 다른 공연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봉사하며 배우는, 행복한 동행! 한길봉사단 인도네시아 봉사활동

한길봉사단 30명이 지난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4박6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글로벌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글로벌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타국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된 한길봉사단 인도네시아 봉사활동을 따라가 보자.

지난 7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길봉사단 인도네시아 봉사활동은 재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 접수 기간 동안 모집 인원인 30명보다 무려 5배가 많은 150명이 지원한 것이다.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부천인들의 봉사 정신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참가신청서와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총 30명의 하계 글로벌 봉사단은 이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각자의 역할과 활동 연습 등을 익히는 OT 및 사전교육을 가졌다. 실제로 학생들은 조별 모임을 통해 통합 프로그램 이외의 미션들을 확정하고 준비물 등을 챙겼다. 또한 아이들에게 보여줄 춤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간호와 주관 아래 손 씻기 위생 교육 등을 배우기도 했다. 봉사를 많이 했던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봉사의 기쁨을 배우기 위해 떠난 학생들

"나눔이란 넉넉하지 않은 것이라도 조금이나마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대학교 사회봉사단 활동을 경험삼아 제가 가진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저보다 부족한 친구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했습니다."



나눔이란 넉넉하지 않은 것이라도 조금이나마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e-비즈니스과 3학년 엄선우 학생의 하계 글로벌 봉사단 지원 동기다. 엄선우 학생을 포함한 30명의 학생들은 7월 2일 바탐섬에 위치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아야산 초등학교를 찾아가 본격적인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아야산 초등학교와 봉사 활동 협약을 마친 후 준비한 노트북, 학용품, 축구공, 농구공, 수건, 옷 등의 기증품을 증정했으며, 미리 연습해간 강남스타일, 독도는 우리땅 등의 율동을 시연하고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며 친해 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한글 이름표 만들어 주기,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공기놀이, 축구 등을 함께 하고, 간호와 주관으로 손 씻기 위생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외에 조별 프로그램으로 한지 부채 만들기, 종이 접기, 핸드아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라고 하기엔 자칫 식막해 보이는 벽에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주는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하기도 했다. 또한 일정 중 인근 고아원에 방문해 기념품을 증정하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도 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하계 글로벌 봉사는 결코 만만치 않은 활동이었다. 온몸이 익는 것 같은 무더위와 싸워야 했으며, 열악한 편의시설로 말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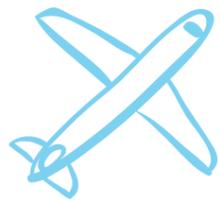
암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바탐섬 어린이들과의 소중한 추억

참가 학생들은 한결같이 "당시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지 겨우 생각해야 할 정도로 좋은 기억만이 남아 있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통할 수 있는 말이 '이름이 뭐니?' 정도였지만, 함께하는 시간동안 아이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며,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고. 봉사활동에 참가했던 관광경영과 3학년 이경희 학생은 아이들과 함께 한 벽화 그리기와 축구 응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척척해 보이던 벽들이 알록달록 색이 칠해지면서 예뻐질 때 아이들이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다 완성되고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을 만큼 활기차게 변화한 벽과 아이들의 미소를 봤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 남자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 응원하면서 기뻐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학생들은 이번 하계 글로벌 봉사활동은 다양한 경험 그 이상이었으며, 특별한 재능이 없더라도 마음만으로 충분히 나눌 수 있음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와이의 중심에서 '부천'의 자부심을 느끼다

하와이 어학연수 프로그램

부천대학교 학생 간부 43명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하와이에 있는 International Mid Pac College(IMPA)로 '2013학년도 부천대학교 하계 하와이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영어 교육과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꿈을 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부천대학교만의 특별한 혜택 '하와이 어학연수'

'부천대학교 하계 하와이 어학연수'는 매년 진행되는 부천대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 간부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기도 하다. 이번에 참가한 학생 43명은 모두 각 학과 학우회장들의 모임인 '학우회 연합회'를 비롯하여 대의원,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사회봉사단, 졸업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자치기구의 간부들이다. 지난해에는 하와이 카피올라니 커뮤니티 컬리지(KAPI OLANI Community College)에서 진행된 데 이어 올해에는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IMPAC에서 진행되었다.

영어 교육과 문화 체험까지, 일석이조의 경험

학생들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일주일에 4시간씩 본교 원어민 교수들로부터 회화 수업 등을 들으며 부족한 영어 실력을 보충했고, 이어서 6월 하와이로 떠나 홈스테이 형식으로 머무르며 IMPAC에서 수업을 받았다.

등교 첫 날, 레벨 테스트를 통해 클래스를 구분하고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게 된 학생들은 오전에는 강의실에서 원어민 교사들에게 LC/RC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야외에 나가 액티비티 수업을 진행했다. 액티비티 시간은 주로 하와이의 문화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학생들은 체류 당시 하와이에서 개최된 'Korean Festival'에 참여해 자원 봉사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하와이 최고의 명소 가운데 하나인 폴리네시아 문화센터(Polynesian Cultural Center)를 방문하기도 했다. 폴리네시아 문화센터는 폴리네시아



아 제도의 6개 섬의 역사와 문화 전승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풍습을 한 곳에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이다. 이외에도 호놀룰루 소방서 및 코나커피 농장을 방문하고 하와이 전통 음식 체험 등 하와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이어졌다.

시아를 세계로 확대한 소중한 경험

이번 해외연수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으로서 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한 건축과 이성조 학생은 이번 해외연수를 "개인적으로 리더십을 기르고 시선을 확대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문화적 차이를 통해 다양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으며, 영어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부동산금융정보과 심욱 학생에게도 이번 하와이 연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는 이번 해외연수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한인 문화 축제 자원 봉사 참여'를 꼽았다.

"현지인들을 직접 안내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 서툰 솜씨로나마 그동안 배웠던 영어를 사용해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단합된 모습으로 축제 내내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부천대학교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더욱 뜻 깊었습니다."

한편 섬유비즈니스과 회장을 맡고 있는 내혜린 학생은 이번 하와이 어학연수를 통해 외국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지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매일 학교에서 외국인과의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영어를 외면하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유창한 회화능력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원어민 교수의 수업이 부담스러워 꺼렸던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간 생활하며 어느새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큰 발전이라 느꼈습니다."

이번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부딪혀 보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들은 앞으로도 이번 기회에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 하루하루 실현가능한 목표를 달성해나가며 영어 실력 배양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전자과, OMRON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경험하다

부천대학교 전자과 재학생 4명이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세계적인 PLC 기업인 일본 오므론(OMRON) 본사에서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돌아왔다. 박범진, 김영창, 강한별, 강현모 등 2학년 학생들이 일본 오므론 교토 본사와 쿠사츠 공장에서 경험한 4주간의 소중한 경험을 소개한다.



오므론 해외 인턴십을 다녀온 전자과 2학년 학생들. 왼쪽부터 강한별, 김영창, 강현모, 박범진 학생

PLC 분야 최고의 기업, 오므론의 해외 인턴십

일본 교토에 본사를 가진 오므론은 세계적인 PLC 제어기기 제조 기업으로, 지난 2월 부천대학교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므론은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과의 다양한 교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올해 기업 최초로 해외 인턴십을 진행해 대한민국에서 총 10명의 학생을 선발했으며, 전자과 학생 4명은 컴퓨터제어과 3명의 학생과 함께 선진 기술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오므론 해외 인턴십은 현지에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PLC 분야의 가장 선진적인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박범진 학생의 말이다.

이들은 학교 및 한국 오므론에서의 2차에 걸친 면접을 통해 인턴십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후 7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에서 기술교육 및 OJT 등 총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4주간 일본 현지에서 해외 인턴십을 수행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선진 기술을 익히다

4명의 전자과 학생들은 4주 동안 체계적으로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상당한 만족도를 표실했다. 교토 본사와 쿠사츠 공장을 옮겨 다니며 현장에서 실제 쓰고 있는 기술과 품질 향상 시스템들을 접할 수 있었고, 매주 팀별로 배운 점을 발표하고 4주 마지막날에는 개별 PT를 하며 그간의 과정을 정리하기도 했다.

“모든 교육이 일본어로 진행되었지만 한국어 교재를 별도로 제작하는 등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일본어로 한 발표가 부담스러웠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경험을 한 점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외적으로도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한결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오므론 태양의 집을 꼽는다. 태양의 집은 장애인들이 모여 일하는 전용 공장이다.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기업이 공급받는 시스템을 통해 과연 선진국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고.

“이처럼 훌륭한 교육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받았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더 없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오므론과 부천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일본 세이후소 호텔 글로벌 현장 학습을 다녀온 관광경영과 2학년 학생들. 왼쪽부터 정유미, 허지희, 곽호진, 임성희 학생

관광경영과, 글로벌 현장 학습

일본의 서비스 정신을 배우다

부천대학교 관광경영과 재학생 4명이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주 동안 글로벌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정유미, 허지희, 곽호진, 임성희 등 2학년 학생들이 일본 후쿠이현의 세이후소 호텔에서 하루 8시간씩 현지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며 현장 관련 다양한 경험을 쌓고, 아울러 일본어 실력을 배양하는 일석이조의 소득을 얻었다.

후쿠이현 최고의 호텔, 세이후소 노천 온천 호텔

아라와 온천 세이후소 호텔은 일본 북쪽지방 최대급 정원을 갖고 있는 노천 온천 호텔로, 소규모 저녁 뷔페와 호텔 주최 여름 축제가 유명한 명소이다. 허지희, 정유미, 곽호진, 임성희 등 인턴십에 선발된 4명은 세이후소 호텔에서 업무 인턴십을 수행하며 호텔리어로서의 활동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다.

“객실 준비에서 정돈, 연회장 서빙, ‘food and beverage’ 등 현지 직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분야가 나뉘진 국내 호텔과 달리 세이후소 호텔은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순환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일본의 호텔에서 현장 학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난 일본어 실력 덕분이었다. 이들은 관광경영과 내에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고 꾸준히 일본어 실력을 키워 왔으며, 그 결과 일본어 JPT 400점 이상을 받아 선발되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도전하고 싶었고, 나아가 우리 과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외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선진 기술을 익히다

“학교에서 배운 실습이나 평소 익힌 일본어 실력을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경험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 준비생으로서 더욱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의 현장 학습은 실제 현장에서 지금까지 배운 능력을 발휘해본다는 점에서, 더구나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실습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경험이였다. 학생들은 현장 경험 이외에도 일본 현지의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우정을 나누는 등 국내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체험들을 경험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막연히 인식했던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하는 밑거름으로 삼아갔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하며 생활보조금 월 4만 엔을 지급받았으며, 인턴십 이후 JPT 600점 이상 취득하는 것은 물론 일본 현지취업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나는 부천대학생이다!

4명의 외국인 유학생

부천대학교에는 총 4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관광경영과의 유니스(Eunice Pricilla, 2학년, 인도네시아)와 오양가(Uyuga Batbold, 1학년, 몽골), 만화&2D영상그래픽전공의 황근(Huang Jin, 2학년, 중국)과 광고디자인과의 정월림(Zheng Yuelin, 1학년, 중국)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부천대학교를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류에서 시작된 부천대학교와의 인연

현재 유학중인 4명의 학생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부천대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먼저 한국 드라마를 유난히 좋아했다는 관광경영과의 유니스 학생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 목사님의 추천으로 선택 유학을 결심했다. 최근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한국에서 유학하면 언어와 문화 등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여행사 운영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경인 지역에서 관광경영 관련 우수 대학을 찾던 중 부천대학교를 추천받았다고 한다.

같은 과의 오양가 학생 역시 외국 유학을 모색하던 중 여행을 오게 된 한국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고 유학을 결심했다. 모국에서 자주 시청한 한국 드라마로부터 받은 친근감도 한 몫 했다. 몽골과 한국을 잇는 가이드를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하고 싶다는 그녀는, 취업률과 경쟁력에서 단연 앞서는 부천대학교를 선택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중국 길림에서 온 정월림 학생은 한국계 중국인이다. 이미 가족이 1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유학을 결심했고, 한국에서 대학까지 마친 사촌 언니가 추천한 부천대학교에 미련 없이 입학했다.

"중국에서도 광고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부천대학교는 기술도 중시하지만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디자이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화&2D영상그래픽전공의 황근 학생 역시 오랜 고민 끝에 인연을 맺게 된 학교와 전공에 더없이 만족하고 있다.

부천대 사랑, 한국 사랑

이들 네 명의 학생은 부천대학교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많지 않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손꼽는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자신들을 위해 수강 신청에서부터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항상 신경써 주는 국제교류센터의 지원은 물론, 동기들과 교수들도 너 나 할 것 없이 유학생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고 있다. 다음은 정월림 학생의 말이다.

"대개 수업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수님은 수업이 끝나면 항상 오셔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또 쉬는 시간에도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자상하게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황근 학생도 학교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만화&2D영상그래픽전공은 대개 그림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동기들이 항상 옆에서 도와주

기 때문이라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생들과의 친분이야말로 학교생활의 최고의 활력이라고 말한다. 동기들과 함께 떠난 MT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기도 했다. 다음은 오양가 학생의 말.

"동기들과 나이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부천대 학생들은 '누나', '언니' 하면서 굉장히 잘 챙겨 주어요. 그래서 요즘은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재미있어요."

유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 문화 가운데 가장 낯설었던 풍경으로 술자리를 꼽기도 했다. '게임으로 시작해 게임으로 끝나는' 술자리의 왁자지껄한 모습이 무척이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재미에 몇 번 어울렸다가 도저히 체력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지금은 오히려 피하는 편이라고 한다.

"한국에 대한 궁금증으로 유학을 결심한 면이 있지만, 지금은 부천대학교를 통해 한국을 더욱더 제대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과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부천대학교의 학생인 것에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근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희망하고 있다.

NCS의 적용으로 선진 교육의 포문을 열다

전자과

현장 실습을 교육의 중심에 세워둔 전자과. 충분한 이론 위에 실습의 뼈대를 세워 성공의 마천루를 짓는다. 여기에 NCS라는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뒷받침을 마련했다. 열정적인 교육 의지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선진 교육의 형상으로 완성해줄 NCS의 실천. 부천대학교 전자과가 완성해간다.



오늘날 대학은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세상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이에 정확히 반응하는 지혜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연구를 아끼지 않는다. 부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똑똑한 머리만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함께 갖춰 사회를 감동시키기를 바란다. 그중에서도 전자과의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한다. 학생들의 학구열은 물론, 교수진의 교육열도 정점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과, NCS로 교육 체질 개선

전자과는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자공학을 교육하는 곳이다. 첨단전자산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중견 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부천대학교 전자과는 단순 성과 중심의 교육이 아닌, 기술과 사회성을 모두 아우르는 사회적 인격체로서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앞서 진행해온 것이 NCS를 적용한 교육 개편 및 교육 운영이다.

interview

선진교육을 향한 전자과의 발걸음

전자과 성홍석 학과장

전자과는 NCS의 교육과정 적용을 통해 많은 효과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유연한 인재를 공급하고, 동시에 학과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질 높은 취업으로 이어지고, 학생들은 자긍심을 갖게 되죠. 현장 적응력을 확보한 상태니, 이직 및 이탈도 줄어듭니다. NCS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장비 운용 엔지니어 양성뿐만 아니라, 전자제어, 전자회로 보드 설계, 융합전자 교육과정 등 다양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교육의 질이 곧 대학의 경쟁력으로 이어짐을 알고, 좋은 교육 과정을 발굴하는 데 열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전자과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데 있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했다.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를 전년대 교육에 반영해 산업계가 원하는 기술 인재를 재교육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사업으로 2011년 교육부가 주관했다. 이 사업에는 총 40개 대학이 신청했고, 그 중 NCS를 적극 실현할 수 있는 5개 우수 대학 중 하나로 부천대학교 전자과가 선정된 것. 선정 대학은 1년차, 2년차에 걸쳐 교육과정 개편과 교재 개발, 개편된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았다. 부천대학교는 2012년에 교육과정 개편과 교재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 개편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NCS의 교육 적용, 실무와 이론을 동시 강화

전자과가 교육과정에 반영한 NCS 분류군은 '반도체 장비 제조운영' 부문이다. 반도체 장비 하나 없었던 부천대학교가 NCS '반도체 장비 제조운영' 부문을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했던 이유를 성홍석 학과장이 이야기한다.

"매년 졸업생 중 400여 명이 반도체 장비 테크니션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부천 지역에는 동부하이텍, 페어차일드 등 대형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NCS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학생들의 니즈를 동시 만족시킬 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NCS를 기준으로 개편된 교육과정은 국가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자격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는 곧 학과와 학교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테니, 전자과의



진정재 학생(09학번)

전자과에는 열정 넘치는 교수진과 산업계 종사자의 특강, 그리고 현장 실습까지 폭넓게 공부할 좋은 환경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단기적인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취업 후 자신의 스킬을 지속 보완·관리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이 이뤄집니다.

NCS 활용은 부천대학교 업그레이드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개편된 교육 과정에서는 현장 교육의 비중이 높아졌다. 학생들은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총 40시간 체험할 수 있고 반도체 장비 제조 및 수리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총 160시간 동안 실질적인 현장 기술을 배워볼 수 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실로 돌아와 이론 학습을 더하고, 또 다시 현장 실습을 나간다. 실무와 이론의 반복을 통해 강철 담금질하듯 학생들은 졸업 전에 단단한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교수진 역시 산업 현장을 연수한다. 연수 후에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다시금 현장을 이해시킨다. 실무 효과를 지향하는 교재들과 산업체 인사의 특강도 좋은 소스를 제공한다. 현장 응용이 가능한 이론들 덕분에 학생들의 잠재력은 두터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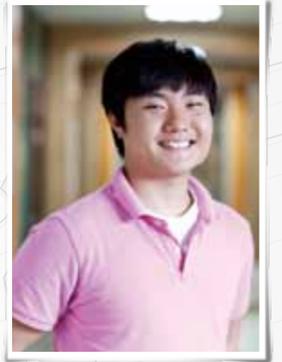
"직·간접적인 반복 실습으로 단련된 학생들이니 산업체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산학협력 업체들을 비롯해 현장실습 업체들까지 줄줄이 우리 학생들을 채용합니다. 익숙한 현장에 투입되는 학생과 재교육 없이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이죠."

현장에서 배우는 사회성과 순발력

NCS를 기반으로 한 실습교육은 실무 능력만 증진시키는 게 아니다. 현장 숙련도와 함께 직무 태도를 또한 배우게 된다. '현장 엔지니어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현장에서 상사 혹은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보고 들으면서 내면에 일종의 사회성이 성장하게 된다. 이는 곧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 경험한 부분이 있으니,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머리와 가슴이 생기기 때문. 이렇듯 기술과 인성의 조화로 인재다운 인재가 탄생하는 것이다.

전자과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동한 인근 산업체에서는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선뜻 기증하기도 했다. Sputter를 기증한 ㈜조인테크놀로지 of 유지상 대표는 전자과 3학년으로 편입한 동문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증했다"며 "살아 있는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전했다. Dry Etcher를 기증한 ㈜피셀의 맹호섭 상무는 "내 고향 같은 부천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되길 희망한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는 조언을 전했다.

"앞으로는 국내의 NCS뿐 아니라, 글로벌한 표준 규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경쟁력을 기르겠다"고 다짐하는 전자과 교수진. 담대히 선택하고 꾸준히 집중하는 전자과의 희망찬 열정에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미래를 걸어본다.



김영현 학생(09학번)

이론 점수보다 실습 점수를 더 높이 평가할 정도로 실습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론은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로겠지만, 다양한 실습으로 우리과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5년,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실습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대일의 소통이 필수인 실습 교육은 전문직업 교육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자과에서는 이런 실습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신뢰 있는 교육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이종성 교수



"NCS를 통해 우리의 스킬과 열정을 꾸준히 들여 갑니다. 학생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초부터 확실히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영진 교수



"학생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좋은 교육입니다. 전자과는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성과 순발력, 나아가 창의성까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 교수

"머리에서 머리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가슴에서 가슴으로 열정을 전하는 전문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덕영 교수



튼튼한 학구열에 실무의 날개를 달다

세무회계과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유명 속담이 있다.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백문(百聞)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백문만으로 충분치 못한 것을 일견(一見)이 완성해줄 수 있는 법. 세무회계과는 백문과 일견의 조화로 최고의 인재들을 배출해 내고 있다.

2005년도에 신설된 세무회계과는 역사는 깊지 않지만, 유아교육과 다음으로 최고의 취업률을 보여주는 부천대학교의 다크호스다. 공무원 준비나 편입 준비 학생을 제외하면 실질 취업률은 90% 이상. 게다가 SK, LG, 삼성생명, 흥국생명 등 금융기관과 대기업 진출자가 꾸준히 늘면서 취업의 질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잘 나가는 과’의 근간에는 어떤 노력들이 숨어 있을까.

최고의 학구파들

세무회계과의 승승장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학생들의 학업 몰입도이다. 바로 백문(百聞)이 천문(千聞)이 되고 만문(萬聞)이 될 때까지 공부하는 것. “2층 도서관을 세무회계과 학생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풍문이 나돌 정도로 전공 공부에 누구보다 열심이다. 게다가 ‘주석’이라는 전공 동아리까지 가세해 선후배 간 스터디 경험까지 벌이고 있다.

이처럼 집중적인 학업 분위기 덕에 세무회계과는 작년 8월 10일 개최된 전국 세무회계·기업회계 경진대회에서 세무회계 단체 부문 대상과 기업회계 단체 부문 은상은 물론이고 개인 부문에서도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에는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노현석, 08학번)에도 성공했다. 2년제 학교에서는 세무사 시험 합격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드문 일. 이를 당당히 성공시킨 세무회계과의 미래에 더욱 큰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현장 업무지원 활동으로 적응력 확보

세무회계과의 매력은 백문(百聞)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여기에 수시로 일견(一見)을 첨부함으로써 100점 만점의 학업 시스템을 갖춰간다. 일견(一見), 즉 현장 실습으로 학습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09년도부터 진행해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지원



활동’을 손꼽을 수 있다. 학생들이 협약한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기간 동안 지역 주민의 세금 신고와 납부 업무를 지원해주는 것. 부천세무서를 시작으로 서울 중부세무서까지 총 9개 세무서에 연 150명 정도가 실습을 나가고 있다.

“현장 실습의 주요 목적은 업무 적응력 확보입니다. 고개 너머로 보고 듣는 무늬만 실습이 아니라, 실무에 직접 참여해 업무를 익힙니다. 현실적인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취업 시 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고, 업무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대인 관계도 배웁니다. 세무서 직원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이어가며, 취업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업무지원을 나갔던 학생이 눈에 띄어 채용된 경우도 있다. 성실하고 꼼꼼한 모습에 반한 세무서장이 퇴임 후 차린 세무사무소에 그 학생을 채용한 것. 실무 능력 함양이 스펙 중 최고의 스펙임을 증명하는 일화였다.

학업 증진부터 부천대학교의 인식 제고까지

업무지원이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높다. 학생들의 정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년간 업무를 지원해온 부천세무서가 친절도에서 전국 1위를 한 이력도 있다. 안내하고 서식 작성을 돕고 전산 처리를 하며 보여준 정성에 납세자들은 늘 만족을 표하고 돌아간다. 이는 곧 인성을 중시하는 부천대학교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결과를 낳고, 부천대학교 출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게 된다.

앞으로도 세무회계과는 꾸준한 실습 체험을 통해 학업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세무서 업무 지원 활동과 마찬가지로, 방학을 이용해 산업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 기업 사무실에 앉아 세무·회계 업무를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의 기능을 갈고 닦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백문(百聞)도 뛰어내고, 일견(一見)에도 충실한 세무회계과. 앞으로 더욱 찬란해질 이들의 미래가 부천대학교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interview

“실무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를 배출할 것”

세무회계과 서정록 교수

실습 교육을 추구하는 큰 이유는 이론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현장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세무서 실무 경험으로 현장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진했던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실전을 통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교수진도 큰 힘이 돼



줍니다. 20여 명의 교수진 중 3분의 1이 현직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입니다. 강의실에서도 실무 사례를 통해 현장의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론은 이론대로 실습은 실습대로 양방향 교육을 완성하는 세무회계과가 되고자 합니다.

완벽한 학업 분위기에 빠져들니다

김승현 학생(09학번)

학업 분위기는 교내 최고입니다. 도서관에서도 세무회계과 학생들이 제일 많합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학업에 더욱 몰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가 복잡하고 어렵긴 해도 모두 함께 열심히니, 절로 재미가 생기답니다.



이론과 실습의 조화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장경석 학생(12학번)

우리과는 이론과 실습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이나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도 체계적이고요. 훗날 회계사가 목표인데, 현장 실습이 자신감을 길러주는 듯하네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정한 숫자로 공정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활스포츠과의 색다른 진로 체험을 경험하세요~

2013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박람회참여 현장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13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박람회가 개최되었다. 180여 개 기관이 참가한 행사에서 부천대학교에서는 생활스포츠과와 3D영상그래픽전공 체험관을 마련했다. 특히 생활스포츠과는 플로윈 운동 방법 등을 소개하고, 플래시몹 에어로빅 등으로 참가한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



생활스포츠과 학과장 송유진 교수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운동법을 통해 생활스포츠과의 진면목을 소개 했습니다.”



“꿈과 끼를 찾아주는 행복 교육의 시적! 교육 기부.” 2013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박람회는 다양한 교육기부기관들의 첨단과학기술, 문화예술, 진로교육, 체육교육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별 박람회이다. 정부,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무려 180여 개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부천대학교에서는 3D영상그래픽전공과 생활스포츠과가 각각 ‘게임 그래픽 교수’가 되고 싶어요, ‘퍼스널 트레이너 체험하기’ 등을 주제로 체험관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부천대학교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Hot’한 운동법을 소개한 생활스포츠과

퍼스널 트레이너(개인맞춤운동 트레이너) 체험을 준비한 생활스포츠과는 인바디 체크 기기를 통해 체지방지수를 측정해주는 한편 스웨덴에서 개발한 플로윈(Flowin)이라는 운동기구를 이용한 운동방법을 소개해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하는 유산소 무산소 복합 트레이닝인 플로윈 운동 프로그램의 다양한 동작을 하루 9회씩 시연해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덴마크에서 만들어져 보급 확산되고 있는 고무줄을 당기며 하는 짐스틱 운동기구를 소개하는 등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최신의 운동법을 소개해 개인 건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목 받았다.

총 11명의 학생들과 함께 박람회에 참여한 송유진 생활스포츠과 학과장은 “한 달 전부터 동작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안무를 짜고 연습을 했다”면서 “무엇보다 박람회의 취지에 걸맞게 많은 청소년들이 시연할 수 있도록 부스 구성과 프로그램 등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박람회에 참여한 1학년 이규림 학생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과 비슷한 동작을 펼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신기해 하고 있다”며, “시연을 펼치는 우리도 반응이 좋아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학년 김길섭 학생 역시 “사람들이 거의 처음 접하는 운동을 가르쳐주고, 더불어 인바디 체크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직접 점검할 수 있어 반응이 좋았다”면서 “진로와 비전이 다양한 생활스포츠과의 진면목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경험할 기회”라고 이번 박람회 참여를 평가했다.

게임 그래픽의 세계로 안내한 3D영상그래픽전공

“게임 그래픽 교수’가 되고 싶어요”라는 타이틀로 부스를 꾸민 3D영상그래픽전공은 게임 그래픽을 제작하는



과정을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제작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캐릭터를 그리고, 모델링을 하고 색을 입히는 래핑을 거쳐 불꽃 등 다양한 이펙트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평소 게임에 익숙한 많은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직접 제작을 시현해 보았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려운 컴퓨터 작업 대신 자신이 직접 캐릭터를 그리고 버튼으로 만들어 가져가는 행사도 마련했다.

학생들은 평소 자주 접하는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에 매우 신기해했다. 3D영상그래픽전공은 이처럼 대중적인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는 차원에서 부스를 마련했으며, 부천대학교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3일간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우리 학교 버스 승강장을 내 아이디어로!

버스 승강장 설치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들

부천대학교에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천역과 신중동역을 연결해 주는 승강장에 대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공개 공모했다. 그 결과 학생과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반 버스 승강장과 차별화되는 부천대학교만의 대표 아이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방은, 서혜연 실내건축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승강장

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문학사, 심화과정, 산업체위탁 등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1인 이상 팀으로 참가가 가능했으며, 결과는 홍보위원회 심사로 창의성(30)과 현실성(30), 기획 구성력(20), 주제 적합성(20) 등으로 평가했다. 특히 1차 평가 후 순위 결정은 공개 프레젠테이션으로 선정해 공신력을 높였다.

그 결과 실내건축과의 임방은, 서혜연 팀이 1등을 수상해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역시 실내건축과의 문병훈, 장재호 팀과 경영과의 박지은, 전지원, 서지수 팀, 그리고 산업디자인과의 박내규 등 3개 팀이 2등을 수상해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e-비즈니스과의 김병조 학생, e-비즈니스과의 박지수 학생, 산업디자인과의 오현진, 정현선, 정현희, 하정은 팀, 실내건축과 박지혜 학생, 정보통신과 이예나 학생 등 총 5팀이 장학금 50만 원이 주어지는 3등을 각각 수상했다.

1등을 차지한 실내건축과 서혜연, 임방은 학생은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가 머무는 대학교"라는 컨셉으로 버스 승강장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햇빛의 방향과 양을 고려한 개구부와 눈부심을 줄이는 알림 장치를 두며, 학교 홍보영상과 제2캠퍼스 계획 등 학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요소를 접목했다. 특히 태양열을 활용해 낮에는 천정 부분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밤에는 조명을 활용하는 등 실용적인 면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부천대의 자음인 '부', '차', '대'를 승강장의 지붕 디자인 요소로 적용해 창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이디어로 부천대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하라

2등을 차지한 실내건축과 문병훈, 장재호 학생은 버스 승강장을 '통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처마를 내리고, 정류장으로 가로막힌 길을 개방시켜 시야를 확보했다.

역시 2등을 수상한 산업디자인과 박내규 학생은 버스 승강장을 버스를 기다리는 지루한 장소가 아닌,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아이디어를 이끌어 행운의 메시지를 주는 말풍선을 아이디어로 도출했다. 모션 센서에 2~3초간 있으면 머리 위의 말풍선 전광판에 메시지가 뜨는 재미 요소를 통해 기분 좋은 승강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2등 수상자인 경영과의 박지은, 전지원, 서지수 학생은 벽면에 메모보드와 시계탑을 설치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의자의 각 면마다 즐거움을 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유쾌한 아이디어들을 접목시켰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용하는 정류장을 바꾸는 데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 뜻 깊었으며, 그동안 지나치기만 했던 버스 정류장의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개선점을 고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는 겪지 못했던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던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수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버스 승강장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병훈 실내건축과



박내규 산업디자인과



오현진 외 3명 산업디자인과



박지혜 실내건축과



김병조 e-비즈니스과



이예나 정보통신과





고윤정 동문(식품영양과 05)

풀무원가족기업 (주)이씨엠디 매니저

나의 선택 나의 믿음 나의 실천, 부천대학교

목표로 향하는 길에는 설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고뇌가 들끓고 방향이 도사리고 있다.

마음은 미래를 꿈꾸더라도 우리는 오늘의 장애 앞에

다시금 힘을 주어 극복해야 한다. 고윤정 동문은 길 위에
당당히 멈춰 고뇌할 줄 알았으며, 또렷이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았다. 그렇기에 꿈꿔오던 그곳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었고,
현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테다.



고윤정 동문은 풀무원가족기업 (주)이씨엠디에서 운영하는 웨딩/연회 브랜드 'baytree'의 연회 담당 매니저로 2010년 입사해 근무 중이다. 식품영양과 심화과정을 졸업한 전공을 살리는 동시에 대기업 입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니, 고윤정 동문에게 지금 이곳은 감사이며 기쁨의 자리일 것이다.

길고 긴 방향도 모두 소중한 자산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홀을 누비며 진두지휘하는 그녀의 모습이 당차고 아름답다. 하지만 오늘의 당당한 모습을 완성하기까지 고윤정 동문의 길이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05년에 입학해 2010년에 졸업한 그녀의 이력만 보더라도 오랜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 자그마치 3년의 휴학 기간을 거쳐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까지에는 많은 고민과 불안들이 오갔을 것이다.

“솔직히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였어요. 나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학교에 가는 것도 싫었어요.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을 학교 밖에서 보내면서 막막함을 많이 느꼈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매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때 나를 단단히 붙잡아 준 것은 내가 등 돌렸던 나의 모교 부천대학교였어요.”

가슴으로 학생을 대하는 교수진의 진정성이 그녀를 새롭게 자극했다. 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막막한 두려움에 빠져 있던 그녀에게 스승이 전한 한 마디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 울림 앞에서 “내 전공을 살려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함께 솟아올랐다.

“백재은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향했던 시간도 네 안에 있는 거다’라고요. 그 또한 흘러버린 시간이 아닌, 나를 견고히 다져준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말이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방향 없이 바로 졸업했다더라면 나약함에 모든 쉽게 포기했을 것 같아요.”
방향이 필수라는 뜻은 아니다. 방향을 겪었다면 그 시간도 소중한 청춘의 단편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지고 시작한 취업 활동. 이후에도 한 번의 고배를 마시고 이직의 번거로움까지 거친 후에야 대기업 입성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길고 지루하며 또 막막했지만, 고윤정 동문은 달팽이처럼 끝끝내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하고야 말았다.

학과 공부의 기본, 취업지원센터 활용은 필수

그녀에게 가장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부천대학교 취업지원센터. 특히 취업 준비의 전반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훈련할 수 있는 취업 캠프는 단연 최고였다.

“이미지 메이킹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기업 인사담당자의 특강까지 영양가로 높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면접 스킬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하며 지도해주셨는데, 어렵게만 느껴지던 것에 차츰 자신감이 붙었죠.”

뿐만 아니다. 서류심사부터 인사담당자와의 면접, 토론 면접까지 사실적으로 진행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은 실전 감각을 길러주었다. 자신감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까지 얻는 기회가 되어준 것. 참여도와 참여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까지 몽땅 챙길 만큼 고윤정 동문은 열과 성을 다해 취업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취업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과 공부입니다. 이와 동시에 취업정보센터 같은 학생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해요.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질 좋은 스펙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면접관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동아리 등 교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리면서 새로운 생각과 원동력을 발굴하세요. 자신감과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을 완성해가세요.”

향후에는 외식업과 영양 전문가로서 역량을 완벽하게 갖춰 강의를 하고 싶다는 고윤정 동문.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원 진학까지 계획해 왔다. 자신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선택의 길 위에서 그녀는 열심히 방향했고 또 열심히 전진해왔다. 그 열정의 길은 지금 더 높은 곳을 향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혜의 창고

사회교육원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식의 형태와 종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요구되는 지식을 적정 시기에 습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1999년 설립된 사회교육원은 열린교육,

평생학습의 장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회문화교육은 물론

학점은행제, 최고경영자과정, 자격증과정 등의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편의에 따라 학점을 저축,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말 그대로 은행처럼 학점을 적립해 학위(2년제 전문학사, 4년제 학사)를 수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예금주가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하는 것처럼 학습자가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한 후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에 저축한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중 학위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도 신청 가능하다.

현재 한 학기 평균 200여 명이 수강 중이며, 전문학사 80학점, 학사학위 140학점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24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기존 학교에서 받은 학점의 일부가 인정되고, 보유 자격증도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기에 더 짧은 기간 내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비용 또한 정규 학과 학비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학점은행제 최대 강점은 자기 스케줄에 맞춰 수업을 신청하고 학점을 적립할 수 있다는 것. 직장인, 공직자 등 시간 활용이 제한된 이

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이다. 효율적인 교육 방식으로 발 빠른 세상에 치여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학위를 수여하게 함으로써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부천시 지역 CEO들의 교실, 최고경영자 과정

1999년부터 운영해온 최고경영자과정은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경영자들의 경영 마인드와 경영 능력 등을 제고함으로써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한다. 지역 사회의 중소기업 CEO와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전문직 종사자들이 6개월 단위 매주 1회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28기로 한 기수 당 40~50명씩 진행하며 현재까지 수료자는 총 1,3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매주 유관기관장 및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통은 해당 학교의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자칫하면 이론 중

심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어 현장 감각이 뛰어난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 최고경영자의 역할, 21세기 기업의 경영전략, 조직운영 관리 등 최고경영자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강의는 기본이고,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외인과 오페라, 음악공연 및 미술전시회 참여 등 문화·예술 저변의 지식까지 습득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최고경영자 과정은 수료 이후 '부경회'라는 최고경영자 총 동문회로 이어진다. 부경회는 지역 사회의 거대 산학협력단체의 역할을 담당하며 수료자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준다. 단순 친목을 넘어 경영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경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재학생 취업 지원 자격, 자격증 과정

사회교육원은 지난 2012년 겨울방학부터 재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자격증 과정을 개설했다. 기타 사회교육원의 경우 일반, 교양, 취미 등 사회문화교육으로 프로그램이 집중되기 마련이지만, 사회교육원은 사회문화교육으로 집중되는 에너지를 상당 부분 덜어내 이를 학생 지원으로 돌리고자 한다. 사회문화교육은 대학 사회교육원이 아니더라도 이미 지자체의 지역문화센터, 복지관, 백화점 등지에서 다수 진행하고 있는 만큼 차라리 그 역량을 학생들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한 연유로 개설된 자격증 과정은 학기부터 방학까지 연중 운영되며, 최소의 수강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최대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반년을 갖긴 시점에서 이미 200여 명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게다가 80% 이상 출석 등 자격증 취득 의지가 강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수강비용의 50~70% 가량)도 지원한다. 교육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취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격증 과정은 순수하게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사회교육원의 배려이자 지혜이다.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현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부천대학교의 위상 역시 높아질 것이다.

mini interview



지성을 넘어 인성을 지향
최재영 사회교육원장

사회교육원은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으로서 지식정보사회의 발 빠른 교육 실천과 함께 지역과 대학의 유연한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학점은행, 자격증 과정 등 눈에 보이는 지식의 비중이 컸다면, 앞으로는 예절 교육, 서비스 교육 등 지식 이전에 필요한 인성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성을 넘어 참된 인성을 추구하는 사회교육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새롭게 기대해 봅니다.

사회교육원



사회교육원의 특화 교육 프로그램 영어마을 KIDS TOWN

사회교육원에서는 지역사회의 영어 활성화에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니영어마을을 운영한다. 위탁 형식으로 진행하며 신청한 유치원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입소하게 된다. 한 회에 120명씩 연 3만5,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원어민 교수가 직접 지도를 하고 요리, 미술, 음악, 수학, 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아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영어 교육의 흥미와 효과를 동시에 높인다.



호텔외식조리과, 2013년 유럽 조리 연수

호텔외식조리과가 지난 7월 1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와 이태리 등 유럽 2개국을 돌며 세계 3대 조리학교인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와 이태리 ICIF에서 조리 연수와 선진 조리 강의 기법을 익히고 돌아왔다. 교수 2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은 프랑스와 이태리 요리에 대한 연수와 더불어 수료증을 취득하고,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와 이태리 ICIF의 시설 등을 견학하며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프랑스 '에콜드 뱅부르고뉴'에서 시설을 견학하며 연수와 더불어 수료증을 취득하고 이태리의 와인너리를 방문하는 등 외국인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프랑스와 이태리의 재래 시장 등을 살펴며 외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더욱 폭 넓고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종필 학과장은 "폭넓은 전문 지식은 향후 조리사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필수 사항이며 이번 유럽 조리연수를 통해 음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와 상호협력협약 체결

부천대학교는 지난 7월 19일 밀레니엄관 회의실에서 한방교 총장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들의 경력개발을 통한 사회진출을 기여하기 위한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과 교육 자료의 공유 및 공동연구 개발, 재학생, 졸업생 대상 온라인 교육 및 커리어코칭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방교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여성지원 전문교육 분야에서 가장 역량 있는 센터와 협약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 크고 중요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대 항공서비스과 티웨이항공사와 산학협력 체결

부천대학교는 티웨이항공사와 지난 9월 3일 밀레니엄관 2층 항공서비스과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티웨이항공 합철호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했고, 부천대 한방교 총장과 보직교수, 항공서비스과 교수와 재학생 등 80명이 배석했다. 또한 부천대 항공서비스과와 협력사업 논의를 위해 방문한 일본 자매결연교 NSG그룹의 국제외국어 에어라인학교 방문단도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항공 산업에 종사하는 지식, 기술, 태도 습득, 항공사 업무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양 기관의 인력 교류 등에 대해 산학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게 된다.



생활스포츠과, 2013 서울국제라인댄스축제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생활스포츠과는 지난 6월 23일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관 체육관에서 개최된 2013 Seoul International Line Dance Festival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학년 경도한 학생이 Young Adult Novice에서 종합 1위, 2학년 최유림, 권보람 학생이 Young Adult Novice, Young Adult Newcomer에서 각각 종합 2위를 수상한 것이다. '2013 서울국제라인댄스축제'는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주요 라인댄스 대회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특히 UCWDC 미국 본부가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를 총괄 운영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더욱 권위를 높였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MOU 체결

부천대학교는 지난 7월 2일 부천시청에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와 문화도시 지향 공동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 관내 5개 대학과 함께 이뤄졌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인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해 윤길근 부천대학교 부총장 등 5개 대학 관계자, 그리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김영빈 집행위원장, 고광길 후원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천시 관내 5개 대학과 영화제 영역에서 협력을 논의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영화제에 많은 대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길근 부총장도 인사말을 통해 5개 대학의 신문, 방송, 연극영화,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학과가 지원과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하면 발전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KBS <생생 정보통> 섬유리뷰비즈니스과 인터뷰 방송

섬유리뷰비즈니스과 손은중 교수(학과장)의 인터뷰가 지난 7월 23일 KBS2 TV <생생 정보통>에 방송되었다. 이번 인터뷰는 프로그램 중 '강성범의 세상 돋보기 - 무더위도 공공! 냉장고 바지' 코너에서 여름철 시원한 옷으로 어르신들이 입을 바지와 유사한 냉장고 바지의 인기 비결에 대해 디자인과 섬유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해당 방송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로 확인할 수 있다.

부천대 유아교육과 교원양성평가 최우수 A등급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진하는 '2013년도 교원양성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800점 이상)을 받았다. 교원양성 기관평가는 교육 여건, 교육 과정,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교원양성 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교원양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부천대 유아교육과는 광명시와 시흥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대학 내 어린이 영어교육을 위한 키즈 타운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현장 실습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 어린이급식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산학협력단 협력을 통해 영유아 대상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Perfect!

사람다운 사람, 퍼펙트한 인재
부천대학교

창의와 인성에 기술을 더한 사람다운 사람!

2014학년도 학생 모집안내

- 수시 1차 모집 원서접수 : 2013.9.4 ~ 2013.9.30
- 수시 2차 모집 원서접수 : 2013.10.28 ~ 2013.11.18
- 정시 모집 : 2013.12.23 ~ 2014.1.6
- 입학문의 : 교무처 032-610-07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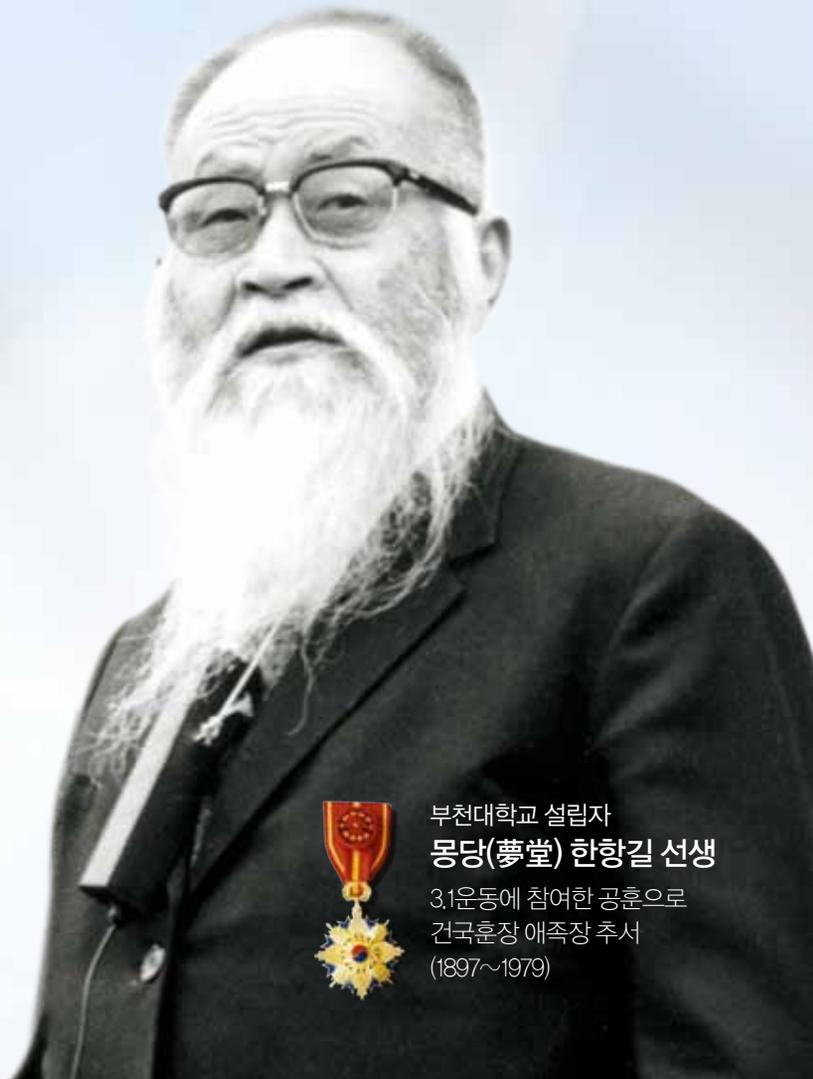
산업체 위탁생 / 4년제 학사학위과정 모집

- 입학문의 : 평생교육처 032-610-0591~7

www.bc.ac.kr



사람다운 사람
부천대학교



부천대학교 설립자
몽당(夢堂) 한항길 선생
3.1운동에 참여한 공훈으로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897~1979)